

아세안5, 양질 소비재 수출 늘리고 중간재 질적 고도화 필요

한은, 아세안5 수출 특징·전망 보고서
한국 총 수출서 中·미국이어 세번째
반도체 비중 20%, 중간재 60% 이상
“아세안5 수출구조 개선해야” 경고

아세안5(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국가들이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7일 대(對) 아세안5 수출 특징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세안5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했다



지난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가 감소한 307억 달러, 수입은 19.2%가 줄어든 3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이달 12억3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데 이어 연간 누계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관세청은 21일 밝혔다. 비가 내린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고 밝혔다.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비중은 20% 이상, 석유제품·화학공업제품 등 다른 중간재도 60% 이상을 차지했

만, 식품·의복 등 소비재는 5%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별 비중에서는 베트남(60%)이 절대적이다.

이날 한은은 아세안5 수출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중국 수출과 마찬가지로 한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 중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해 중간재 중심의 수출에만 주력하고 중국 내수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이후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고 내수 중심 성장을 도모하자 결국 대 중국 수출은 감소했다.

한은은 반도체 등 중간재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아세안의 소비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해 소비재 수출을 증대시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세안5 국가의 고위기술 중간재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017년 부터 상승세를 멈추고 13%안 밖에서 정체돼 있다. 또 아세안5 국가의 수입품목 중 89%는 중간재로 이뤄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규제 회피를 위해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이 늘면서 앞으로 해당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중간재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아세아의 인구 및 소비시장 성장을 감안해 양질의 소비재 수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韓·美·EU 물가여건 달라… 통화완화 시점 차별화”

한은,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
韓 농산물 가격 높은 수준으로 지속
美 지난해 말 이후 고용 상황에 ‘발목’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목표치(2%)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각국의 물가에 미치는 요소들이 달라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최근 한국·미국·유로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3.1%로, 시장의 예상(2.9%)을 웃돌았다. 유로지역은 지난해 11월 2.4%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월 2.8%로 반등했다.

우리나라의 물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에서 올해 1월 2.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7월(2.4%)보다 높은 수준으로 물가목표치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한은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국제유가를 올리며 물가상승률을 더 이상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

제로 국제유가는 2022년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다가 지난해 7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 물가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올해는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상승률 목표치 둔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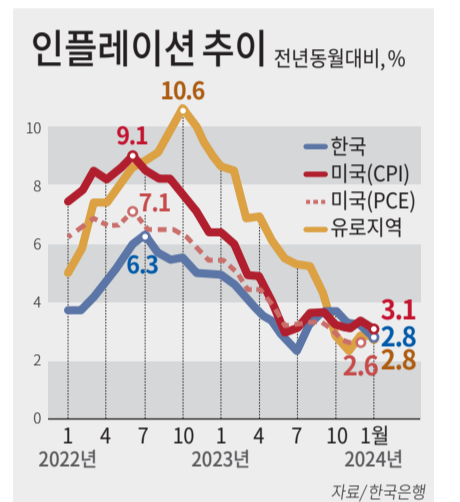
여기에 국가별로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요인도 차별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이후 견조한 고용상황이 지속되면서 근원서비스물가 상승모멘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상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역의관계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 위해선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

다. 견조한 고용상황에서 더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물가 상승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8~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황부진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농축산물의 물가여건도는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국의 물가둔화흐름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동인과 경기흐름에 따라 둔화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방리스크뿐 아니라 각국의 물가 둔화 요인에 따라 통화정책 전환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청약신청 줄자 당첨확률 2배 증가... 30대 이하, 확률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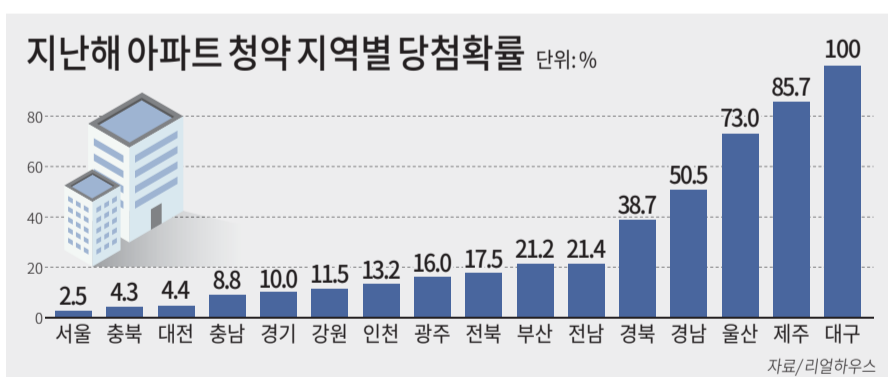
2020년 대비 2배이상 오른 수치
충북 4.3%, 대전 4.4% 등 한 자릿수
대구·제주 각각 100%, 85.7% 확률

아파트 청약신청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당첨될 확률이 가장 낮았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청약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분양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총 132만6157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11만148명(1순위, 2순위 포함)으로 8.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4.0%) 대비 2배 이상 오른 수치다.

아파트 청약당첨률이 올라간 것은 청약 신청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약 신청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2020년에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516만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42만명이 감소한 374만명이 신청했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5만명, 132만명이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



당첨확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는 36만3054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2.5%(8989명)만 당첨됐다. ▲충북 4.3% ▲대전 4.4% ▲충남 8.8% 등으로 서울과 충청권 지역 아파트에선 한 자릿수 당첨 확률을 기록했다. 반면, 마감된 단지가 없었던 대구와 제주를 각각 100%, 85.7%의 당첨 확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당첨될 확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20~30대 청약 신청자는 71만7085명으로, 그중 8.0%가 당첨됐다. 20~30대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청약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50대는 청약자 16만3997명 중 9.2%가 당첨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는 8.51%, 60대 이상의 신

청자 중에는 8.4%가 당첨됐다.

인기지역인 서울이나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청년, 젊은 계층의 청약 기회를 넓히려고 제도를 손보고 있어 향후 30대 이하 청약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19세~39세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과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시행 중이다. 내달에는 ‘부부 개별청약 신청’과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신생아 특별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모두 적용되는 85㎡·6억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대기업-중소 월급 격차 300만원 넘는다

통계청 ‘임금 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대기업 591만원 vs 중소기업 286만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급 격차가 300만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2022년 기준 대기업 월급은 중소기업 월급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종사자는 세전보수로 월평균 591만 원, 중소기업 종사자는 286만 원을 받았다. 소득 격차가 2021년 2.12배에서 2.07배로 줄었으나 금액 차이는 297만 원에서 305만 원으로 더 커졌다.

또 대기업의 경우 1000만 원을 받은 이상 비중이 12.9%인 반면, 중소기업은 1.7%에 머물렀다. 대기업은 절반 넘게(54.3%) 4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탔으나 중소기업은 13.9%에 그쳤다.

대기업 종사자의 평균소득은 50대(768만 원), 40대(728만 원), 30대(55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40대(332만 원), 50대(316만 원), 30대(300만 원) 순이었다. 규모별 평균소득은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이 4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0~300명(351만 원), 50명 미만(261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이외의 비영리 기업은 전년보다 3.3%(11만 원) 오른 346

만 원을 받았다.

산업별로, 금융·보험업 월평균 소득이 757만 원으로 가장 많이 타갔다. 전년보다 4.3%(31만 원) 늘어났다. 이어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이 680만 원, 국제·외국기관이 515만 원이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172만 원)이었다.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223만 원)과 농업·임업 및 어업(231만 원)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과 비교해 건설업(+34만 원·12.9%)에서 월급이 가장 많이 올랐다. 운수 및 창고업(+26만 원·8.2%), 사업시설 관리(+15만 원·7.1%)가 뒤따랐다. 국제 및 외국기관(515만 원·-0.1%)은 소득이 줄었다.

성별로, 남성의 평균 소득은 414만 원으로 여성(271만 원)의 1.5배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6.5%(+25만 원), 여성은 5.7%(+15만 원) 올랐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용직 비중이 높은 산업에 남성이 많이 분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남성은 50대(509만 원), 40대(508만 원), 30대(409만 원) 순으로 소득이 높고 여성은 40대(335만 원), 30대(335만 원), 50대(280만 원) 순이었다.

/세종=김민서 기자 kys@